



“吸煙家 자녀들 肺癌 걸릴 위험을 높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폐암이 걸릴 확률은 그들 부모들의 흡연습관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관심이 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폐암환자의 약 17%가 유년시절에 다른 사람들의 담배연기를 맡고 자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의 연구들은 흡연가의 자녀들이 기관지염과 호흡기계질환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을 밝혀내긴 했으나 장기간 담배연기에 노출될 경우 폐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었다.

이 연구논문은 담배연기의 노출과 암위험증가의 상관성을 추적하기 위해 비흡연자들 중 폐암환자와 건강한 사람을 각각 191명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이 실험자들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부모나 배우자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담배를 피우는 부모와 12년 동안 같이 산 사람들은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부모와 산 사람들에게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율이 1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릴때부터 담배연기에 노출되면 후에 폐암이 유

발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한 것으로, 획기적인 연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美환경보호국이 폐암환자의 6%는 일생동안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사람이고, 16%는 한때 담배를 피웠으나 도중에 중단한 사람이며, 83%는 계속해서 흡연을 한 사람이라고 발표한 사실을 들어 이와같은 수치는 다른 사람에 의해 뺀어진 연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입증한 증거라고 이 논문은 덧붙이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의 담배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들의 폐조직이 아직 덜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것을 뒷받침할 근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등어 特殊脂質

皮下지방 감소·血壓 저하시켜

고등어의 腸內細菌이 만들어 내는 특수한 脂質이 피하지방을 감소시키고 혈압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지질은 해양생물에 포함되는 영양으로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을

일본의 사가미(相摸) 중앙학회연구소가 뇌졸중을 일으키기 쉬운 rat를 5마리씩 2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해 이같은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이 연구소는 2그룹중 한쪽에는 이 지질을 5% 섞어 만든 먹이를 4주일간 주었으며 다른 한쪽에는 칼로리는 같지만 이 지질을 전혀 섞지 않은 먹이를 주었다. 그 결과 이 지질을 준 5마리의 rat는 주지않은 rat와 비교해 평균지방조직의 중량이 25%나 감소했으며 콜레스테롤 등 혈액중에 지방분이 약 20%, 혈압이 약 10%나 각각 저하됐다는 것.

이 지질이 이같은 효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적지만 단맛이 있어 rat이 잘 먹자 사가미중앙화학연구소는 장래에 건강식품 등 비만억제제와 혈압저해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抗癌劑 특정시간에 投與하면 効果

암환자에게 낮이나 밤의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항암제를 투여할 경우 치료효과가 월등하다는 연구결과가 노르웨이와 프랑스의 학자들에 의해 각각 발표됐다.

영국의 과학주간지 New Scientist 최근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같은 연구결과와는 특히 인간의 일일 생체리

듬을 암치료에 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일부 의학자들은 환자의 건강상태가 가장 느리게 분열할 때 항암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으며 어떤 의학자들은 정상세포내 해독효소가 가장 풍부할 때 항암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항암제는 암세포 뿐 아니라 건강한 세포에도 여러가지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적절한 시간에 투여하게 되면 건강한 세포가 손상을 받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암환자가 보다 많은 양의 항암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것.

이 연구팀의 리더인 프란스스레비박사는 "66명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두가지 결론을 얻었다"고 전제하고 첫째, 특정시간에 맞춰 항암제를 투여할 경우 일반적인 화학요법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양의 항암제를 투여할 수 있으며 둘째, 치료효과 또한 기존의 방법에 비해 2~3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레비박사는 "특히 환자 3명 가운데 2명꼴로 암피의 크기가 원래의 반이하로 줄어 제거수술이 가능해 졌다"고 밝히고 비율이 기존의 화학요법을 적용받은 경우 이처럼 암피의 크기가 절반이하로 줄어드는 비율이 4명당 1명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